

자본시장 혁신 3대 전략 추진 시동

기업 성장·일자리 창출·국민소득 증대 위한 중심축 역할 기대

금융당국이 '생산적 금융'을 위한 금융산업 '재난짜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자본시장이 기업 성장과 일자리 창출, 국민소득 증대를 위한 중심축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자본시장 혁신 3대 전략'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금융권 내 경쟁을 유도하고 생산적 분야로 자금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진입규제와 자본규제 개편을 추진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사람중심 지속성장 경제 구현을 위한 금융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최 위원장의 '생산적 금융'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자본시장 혁신 3대 전략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동안 서비스 공급자 중심으로 운영되던 자본시장을 참여 기업과 투자자, 고객 등이 공존하는 시장으로 만들자는 취지다.

우선 글로벌 수준의 공정한 자본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한다.

새도우보팅(중립투표제도)은 예정대로 2017년말 폐지해 기업지배구조 선진화, 기관투자자 의견권 행사 활성화 등을 위한 계기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 회계법인과 신평사들이 기업정보를 왜곡없이 전달하는 체계를 확립하고 주가조작 등 시장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신설해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자신운용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국민소득 증대 방안도 마련한다.

금융위는 자산운용 시장의 성장이 국민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투자자 중심'으로 시장 패러다임을 전환하기로 했다.

사적연금 수익률 제고와 '좋은 펀드'에 대한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등을 추진하고 운용규제 완화 등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플레이어들을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자본시장이 스타트업 기업들의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향후 자본시장 정책은 스타트업 기업(start-up) 기업의 스케일업(scale-up)

을 지원하고 성장 자본공급 위주로 시스템을 재정비하기로 했다.

최 위원장은 "그동안 창업 초기단계의 지원에 중점을 많이 뒀는데 기업이 성장해 나가고 회수를 해야 벤처투자자들이 또 다른 도전을 하고 더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다"며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회수시장에 대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금융권 내 신규 참가자를 늘리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진입규제 개편을 추진한다. 업권별 경쟁도를 점검해 신규 진입 정책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인가 업무 단위도 합리적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최 위원장은 "금융투자업의 경우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등으로 세분화돼 자본금 요건이 5억 원에서 500억원까지 열개가 넘는 단계가 있다"며 "이에 비해 은행은 은행으로만 인가를 받으려면 업무를 다할 수 있어 두 업종간 인가업무 단위가 너무 차이가 크다"고 설명했다.

풍부한 시종의 유용성을 기계·부동산이 아닌 혁신·중소기업으로 흘러가게 하기 위한 자본규제 개편도 추진한다.

자금을 기계금융으로 쓸리도록 유도하는 비대칭적 규제를 개선하고 업권간 불합리한 규제 차이를 정비하기로 했다. 자본규제, 자산건전성 분류, 데버리지 규제 등 다양한 유인 수단을 폭넓게 검토할 계획이다.

정책금융 지원체계도 손보기로 했다.

현장방문을 통한 의견수렴을 거쳐 4차산업혁명 지원 프로그램, 혁신·창업기업 지원 프로그램 등을 하반기 중 마련한다.

정책금융과 재정자금간 중복지원을 제거하고 신보와 기보 역할을 재정립해 정책금융 지원의 효과성도 높기로 했다.

집업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연대보증 폐지 등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9월 중 연대보증 폐지 '역선 플랜'을 마련, 정책금융을 중심으로 폐지를 추진하고 보완방안 등을 마련해 민간 금융권으로 확산시키기로 했다.

/뉴시스



월동형 인스톨 양배추, 장영실상 수상

아시아 종묘보급으로 일본산 제치고 국산품종 우수성 확보

김제시 민간육종연구단체에 입주한 아시아 종묘(대표 류경오)가 최근 한국산업기술협회와 매일경제신문이 주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후원하는 IR52 장영실상 2017년 제18~34주차 수상제품 시상식에서 '월동형 인스톨 양배추' 개발로 국내 종자업계 최초 IR52 장영실상 기술혁신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IR52 장영실상은 국내에서 개발된 신제품 중 신청접수일 최초 판매일이 3년을 경과하지 않은 제품으로 신청하게 되어 신청분과로는 전기, 전자, 화학, 생명, 정보통신, 소재, 환경, 기계, 기술혁신 6개 분과로 아시아 종묘에서 기술혁신분과로 신청한 '월동형 양배추 인스톨'은 2007년부터 개발하기 시작하여 실패와 도전을 거듭하며 드디어 2014년부터 판매를 시작으로 지난 5월 선정되어 엄격한 심사를 거쳐 장영실 기술혁신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그동안 일본 품종만 재배해 오던 농민들은 내한성과 내병성이 획기적으로 강화된 인스톨 양배추를 2014년 7월부터 아시아 종묘에서 보급하면서 일본산을 제치고 원에

종자 사업단의 국책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국산품종의 우수성이 확보되면서 인스톨 양배추가 차지하고 있다.

한편 아시아종묘 생명공학육종연구소에서는 분자육종과 조직배양 같은 생명공학 연구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으며, 지구 온난화로 양배추의 재배환경이 점점 나빠지고 예전에 없던 병충해의 피해가 날로 심해지고 있다며 아시아종묘 연구팀은 어떠한 불황환경에서도 재배하기 쉬운 내재해성 품종과 모든 병충해를 견딜 수 있는 복합내병충성 품종개발에 숨은 일꾼 김제육종연구소 이인호 부장과 김경철 차장이 함께 하고 있다.

이건식 김제시장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자연의 섭리에서 살아남기 위한 식물들의 자생력과 적응력을 강화하는 생명공학육종연구를 선도하는 아시아 종묘의 인스톨 양배추 개발로 수입대체 효과 뿐 아니라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여 위촉되어 가는 농촌에 새로운 활로가 되어 국내 점유율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9월 식재료 '수수·팽이버섯·자두' 선정

농진청, 가정식 조리법·단체 급식용 조리법 소개

농촌진흥청이 '이달의 식재료'를 매달 소개하고 있는 가운데 9월 식재료로 수수, 팽이버섯, 자두가 선정됐다.

농진청은 4일 수수, 팽이버섯, 자두를 주재료로 만들 수 있는 가정식 조리법과 단체급식용 조리법을 소개했다.

수수는 곡류지만 다량의 탄닌을 함유하고 있으며, 폴리페놀, 플라보노이드와 같은 항산화성분 함량이 풍부해 항산화활성이 높은 특성이 있다.

수수의 씹스레한 맛은 팔이 가지고

있는 달고 신맛과 잘 어울려 떡이나 부꾸미 등에 주로 이용됐다.

또한 곱게 가루를 내어 바삭한 과자를 만들고, 불에 볶아 붉은색의 맑은 차나 기름에 살짝 튀겨 팝콘이나 시리얼 등 건강 간식으로 이용해도 좋다.

수수를 이용한 조리법으로는 수수배추찜, 수수견과류실기떡, 수수가루부추무침을 소개했다.

팽이버섯은 열량이 낮고 아미노산, 비타민, 무기질, 수용성 식이섬유류가 고루 함유하고 있다.

팽이버섯은 오래 끓여도 꼬들꼬들 씹히는 쫄깃한 질감이 으뜸이지만 열에 쉽게 숨이 죽는 특성이 있어 조리시 마지막 끓을 때 넣어야 형태가 흐트러지지 않고 맛이 좋다.

또한 마른 팬에 볶거나 건조시켜 두었다가 다양한 음식으로 조리할 수 있으며 가루를 내어 쓰면 소화가 가능하고 영양 보충식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팽이버섯을 이용한 조리법으로는 팽이말이찜, 팽이초추기름절임, 버섯김치잡채, 버섯파클을 소개했다.

이브의 과일이라는 애칭으로 불리는 자두는 비타민과 무기질이 풍부하고

유기산과 과당을 비교적 많이 함유하고 있다.

또한, 칼슘 함량이 다른 과일보다 높고 어린이 발육이나 노인들의 골다공증 예방에 좋다.

자두는 장기 저장이 어려워 주로 생식으로 이용되지만 건조과일로 활용성이 높으며 절여두고 오래 먹어도 좋다. 자두를 이용한 조리법으로는 자두물김치, 자두타르트, 자두두부불조림을 소개했다.

9월의 식재료와 관련해 자세한 내용은 농업기술포털 '농사로·생활문화·음식·이달의음식'에서 볼 수 있다.

/뉴시스

'스마트폰 100만원' 시대 본격 개막 '눈앞'

연이어 공개되고 있는 하반기 프리미엄 스마트폰 가격이 기존의 예상치를 뛰어넘으며 이른바 '스마트폰 100만원' 시대가 열리고 있다.

4일 외신에 따르면 이달 내 공개될 10주년 기념 아이폰은 가격이 최소

(32GB 용량 기준) 999달러 수준으로 책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화로는 100만원을 훌쩍 넘는 금액이다.

아이폰8 256GB 모델의 경우 1399달러까지 호가할 수도 있다는 예측이

우세함에 따라 소비자들의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삼성전자의 신제품 갤럭시노트8 역시 100만원대 이상으로 책정될 가능성이 높다.

고동진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사장은 최근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IFA(국제가전전시회) 2017 기자 간담회 자리에서 참석해 "(가계에서) 1자를 안

보기 위해 많이 노력했는데 결과적으로 국내 경우에는 그러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며 신제품 가격이 100만원을 넘어설 것임을 강력 시사했다.

특히 인공지능(AI)이 탑재되고 고성능의 카메라 기능이 채택되는 등의 영향으로 가격 상승세는 이어질 전망이다.

/뉴시스

KB국민카드, '알파원 오토 체인지' 서비스 제공

KB국민카드는 결제할 때마다 혜택이 가장 많은 카드로 바꿔주는 '알파원 오토 체인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KB국민카드의 서비스 '알파원 오토 체인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KB국민카드의 서비스 '알파원 오토 체인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KB국민카드는 고객들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해시태그별 최적의 혜택이 제공되는 상품을 제시하는 '추천 상품 소개' 기능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의 푸시 메시지로 사용된 카드 상품명을 알려주는 '알파원 전용 알림 서비스'도 무료로 제공한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고객들이 결제시마다 카드를 변경하는 번거로움과 카드 변경을 못해 혜택을 못 받는 사례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뉴시스

우리동네 무인주차장 어디에 있을까?

주차하고 구경하고
무인주차장에 주차하면
시간도 절약되고 편리합니다.



[전주시 무인주차장 안내]

서부신시가지 도형열

전주시 완산구 흥산북로 75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서부신시가지 농협중앙회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북로 53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서부신시가지 다온병원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2길 5-12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서부신시가지 KB은행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1길 4-13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노송천 주차장

전주시 노송여울2길 108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덕진광장 주차장

전주시 덕진구 덕진광장로 3
(239-2562)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실내체육관 주차장

전주시 덕진구 권선북로 308
(251-1264)
(연중무휴) 4,000원 기본(30분):500원, 추가(15분):250원